孟氏使陽膚爲士師，問於曾子。曾子曰：「上失其道，民散久矣！如得其情，則哀矜而勿喜。」

독음 · 맹씨사양부위사사 문어증자 증자왈 상실기도 민산구의 여득기정 즉애긍이물희

쉬운 풀이(요약) · 윗사람이 도를 잃어 백성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으니, 재판에서 범행을 알아내더라도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며 가엾게 여기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孟 맏 맹 맹 / 氏 성 씨 씨 / 使 하여금 사 사 / 陽 볕 양 양

膚 살갗 부 부 / 爲 할 위 / 士 선비 사 사 / 師 스승 사 사

問 물을 문 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曾 일찍 증 증 / 子 아들 자

曰 가로 왈 / 上 윗 상 / 失 잃을 실 실 / 其 그 기

道 길 도 도 / 民 백성 민 민 / 散 흩을 산 산 / 久 오랠 구 구

矣 어조사 의 / 如 같을 여 여 / 得 얻을 득 득 / 情 뜻 정 정

則 곧 즉 / 哀 슬플 애 애 / 矜 불쌍히 여길 긍 긍 / 而 말이을 이

勿 말 물 물 / 喜 기뻐할 희 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